

여수시,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항'

여자만 돌레길 조성 등 56개 주요 대표 실행과제 논의 정기명 시장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앞당길 것"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국·소·단장 등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각 개별 실행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 시장 주재로 총괄 보고와 세부 실행계획 보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수만 르네상스



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56개 주요 대표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 실행과제는 ▲여자만 돌레길(고흥-보성-순천-여수) 조성, 국가해



정기명(왼쪽) 여수시장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해당 국·소·단장 등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생태공원 지정 ▲장수만 섬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섬 이동체계 구축 ▲가막만 마리아 R&D센터 건립, 복합해양레

저관광도시 육성 ▲여수해만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위케이션 활성화 체계 구축 ▲광양만 수소도시 조성, 석유화

학산단 신산업 전환 등이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

종 용역에서 제시된 61개 사업 과제에 대해 한 달여간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56개 실행 과제 확정과 함께 해당되는 20개 추진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사도·추도·낭도 등 장수만 일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화양면 안포리 일원의 뷰터·스파 웰니스센터 건립 등 일부 과제는 이미 실행에 돌입했다.

정기명 시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라며 "속도감과 완성도를 높여 여수시의 비전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와 관련 공무원 벤치마킹 원정대와 시책 연구 모임 연계를 통해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연구해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 매출 20억 돌파

군 지역 운영...편의성 도모 매출 증대 주효

화순군은 4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이 올해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설된 화순팍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팍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최고 매출액 16억 원을 달성, 8월 말에는 20억 원을 돌파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화순팍을 알리고, 화순군의 농특산물인 미나피프리카, 복숭아, 사인머스켓,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굴비, 기정떡, 화순쌀 등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위탁운영 했던 화순팍을 올

해부터 화순군이 직접하면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 회원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대에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화순팍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했다.

현재 화순팍에서는 13일까지 '추석 맞이 달달(月)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원)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2천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현된 농촌활력과장은 "화순팍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욱 도약하는 화순팍이 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 많으니 관심과 사랑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극복선도단체 4개소 신규 지정

장성군은 "최근 '치매극복 선도단체'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지정된 곳은 ▲열린문 재가복지센터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에버다 재가복지센터 ▲한사랑 재가복지센터다.

단체 구성원 전원이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뒤 치매환자 가족 지원,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활동 등에 적

극 참여하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장성지역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총 25곳이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으로 치매 걱정 없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단체들은 장성군이 자체 추진 중인 '치매인지강화교과' 대역사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그림퍼즐 등 인지교구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한다. /장성=김문태 기자

"딥페이크 피해 상담 지원"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치유회복 프로그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피해 지원을 위한 전화 상담(061-863-1318)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 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02-735-8894)이 가능하다. 이 밖에 민간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수사·법률 지원을 하며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채널 '디포유스', '십대여성인권센터'(010-8232-1319)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이며, 다양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시마동생태호수공원 환경교육센터 일원에 '맨발 황톳길'과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황톳길'을 개장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조승환 맨발 황톳길' 개장

축감 체험장·세족장 등 마련

광양시가 맨발 황톳길과 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 씨의 이름을 딴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황톳길'을 개장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마동생태호수공원 환경교육센터 앞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박경미 전남도의원,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전국회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맨발 황톳길' 개장식을 개최했다.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한 황톳길은 순환형 700m, 노폭 1.5~3m 규모로 야간 맨발걷기를 위한 공원 등이 설치됐다. 또 축감 체험장과 세족장, 신발장 등의 휴게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맨발 산책로 개장식,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황톳길 명명식,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광양지회 발대식을 연계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양시 홍보대사인 조승환 씨는 광양 출신의 국제환경운동가로 일본 후지산 맨발 등반 성공,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 맨발 마라톤 완주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인화 시장은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장수국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WHO에서 장수비결로 걷기를 꼽은 만큼 걷기 열풍이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황톳길 조성을 시작으로 광양시를 대한민국 대표의 친환경 건강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신혼·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내달 18일까지 신청...월 최대 25만원·3년 지원

곡성군은 4일 "오는 10월18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급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37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월 최대 25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고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만49세 이하·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오는 10월1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

부자농촌 실현·담양형 향촌복지 방안 모색

담양군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한 정광선 부군수 및 한연덕 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주요 내용은 부자농촌 구현,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실질적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노 군수는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